

화순군,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실시

안전한 농산물·우수한 품질 식품 안정공급 노력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유통 활성화 추진



화순군은 12월 4일 월요일 하나움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화순군은 4개 농축협의 로컬푸드

협력 협약을 추진하며, 지역 내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군과 농축협의 로컬푸드 협약에 따라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받아야 했던 보수교육을 통합하여, 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1회 수료하면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보수교육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1일 자에 실시했던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이 진행되었다.

로컬푸드 주요 교육으로는 화순팍 소개 및 홍보, 로컬푸드 선진사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등 3분야였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속적인 군과 농축협의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로컬푸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농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영화 관계자들, 장성의 매력에 흠뻑"

영화 관계자 팸 투어... 필암서원·백양사 등 명소 방문

장성군이 최근 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했다. 팸 투어는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초청 관광 행사다. 이번 팸 투어에는 영화 '더 킬러'를 연출한 최재훈 감독과 '갯길 좋은 날'의 박용주 감독 등 영화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첫날 장성읍에서 출발해 황룡강, 홍길동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 등 명소를 방문했다. 이튿날에는 천년고찰 백양사를 찾

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팸 투어에 참여한 영화 관계자는 "장성의 문화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음식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성 여행을 기획해 '1000만 관광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나주시, 전국 최초 생체 건강 신호 측정 '스마트워치' 보급 눈길

치매안심마을 거주 어르신 100명 대상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나주시가 치매,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지역 어르신의 노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전국 최초로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홀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 경증치매 환자 1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 실시간 생체 및 심리 수치 측정·분석에 따른 건강 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워치(시계)는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를 비롯해 산소포화도, 심박 이상, 활동량(걸음 수), 낙상·기절 등 어르신의 생체 건강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돌봄 기기다.

대상 어르신의 월별 건강지수를 파악해 건강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시계와 연결된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로 우울·불안·스트레스·회복탄력성 등 심리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정신건강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워치는 나주시의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생촌신호정보연구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시계를 통해 취득한 위치정보를 활용, 치매 어르신 사고 방지와 고독사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자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립됐다.

3개 기관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 건강 안전망을 위한 생체·심리 연계 웰니스(신체·정신건강 종합지수) 케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3차에 걸친 연구·실증을 진행해왔다.

나주시는 실증 성과에 힘입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 나주시 시정연구모임인 '뚝세움' 발표회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SMART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 체계 조성사업을 제안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이뤄냈다.



시는 소방서, 경찰서, 관내 병원과 연계, 어르신의 실시간 신체·정신건강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응급 상황 출동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국 최초 스마트워치 기반 생촌신호정보 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마을과 집에서 노후 일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곡성을 품다·테마여행10' 관광 안내 책자 발간

곡성군이 식상한 관광 안내서의 틀을 벗어나, 글과 함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곡성을 품다-테마여행10'을 발간했다.

'곡성을 품다-테마여행10'은 곡성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 인물, 관광명소 등을 10개의 주제로 나눈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관광 책자는 곡성 출신 언론인과 시민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각 장소의 이야기를 맛깔스럽고 감성적인 문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관광 명소의 나열이 아니라 각 장소가 가진 느낌과 사색을 전달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톡



톡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 책자를 통해 관광객들이 곡성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으로 느끼길 바란다. 곡성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 2749톤 매입

구례군은 2023년산 공공비축미 계획 물량을 전량 매입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매입 품종은 새일미, 새정무 2개 품종으로, 군은 산물 벼 299톤, 친환경 벼 180톤, 건조 벼 2,270톤을 매입했다. 또한, 군은 환원마름병 피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농가에서 희망한 피해 벼 15톤도 전량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

지 쌀값을 반영해 정해질 예정이다. 우선 지급금은 40kg 기준 3만 원으로 수매한 직후 지급됐고, 추가 지급금(차액금)은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말에 정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생육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미질 악화가 우려됐으나, 농민들의 노력으로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이 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